

“아기 울음은 말이다”

말 모르는 아기의 울음의 절반은
울음이 아니고 말(언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알아내기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별건곤 제18호(1929년)에 수록된 방정환 선생님 글

*별건곤: 일제강점기 창간된 대중잡지

Contents

- 03 보육 Theme 1_ “아기 울음은 말이다”
- 04 보육 Theme 2_ 시간제보육사업안내
- 06 Special Theme 1_ 아빠는 왜 아이와 놀아주기 힘든가? (실제편)
- 08 Special Theme 2_ 어린이집 살펴보기 “아이야! 같이 놀자!”
- 10 Special Theme 3_ 안전사고유형(물림): 강아지가 화났어요
- 11 Special Theme 4_ 식품알레르기 A to Z
- 12 Special Theme 5_ 마음챙기기 두 번째 “육아와 스트레스”
- 14 Special Theme 6_ 다른그림찾기 - 무엇이 무엇이 달라졌나?



재난 호 보기

시간제보육사업안내

※ 시간제보육이란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시간제보육 안내

- 제공기관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정보 :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개별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STEP1. 아동등록

인터넷 이용 시 (이용자 본인)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필수	①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등록 가능

STEP3. 이용

- 운영시간 : 평일(월~금)
-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STEP2.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 전화 : 1661-9361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PC/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	전화신청 (☎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STEP4. 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
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
됩니다.
- ※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1.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더라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2.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되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반에는 변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
(독립된 보육실)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합니다.
3.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호 보기

실제편

아빠는 왜 아이와 놀아주기 힘든가?

글 · 권오진 교장(아빠학교 교장/인성발달연구소장)

카센터를 하는 후배에게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 중 1명이 야근이 없음에도 매일 9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다. 궁금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5살 아이와 놀아줄 자신이 없기에 늦게 퇴근했다고 고백했음을 말해주었다. 아직도 많은 아빠들이 놀이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필자는 말한다. 세상은 온통 놀이터 천국이다. 그리고 놀이가 세상에서 가장 쉽다. 또한 아이와 잘 놀아주는 것은 곧 아내를 가장 사랑한다는 시그널이다.

“아이와 놀이를 정하는 방법”

아이와 재미있게 노는 비법이 있다. 바로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하면 된다. 아래의 방법으로 준비하면 설레임과 예측이 발생하여 행복 모드로 전환된다.

- 1 포스터 이용법:** 전지 1장을 거실 벽에 붙인다.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놀이가 있다면 매직으로 적는다. 매일 아이와 상의하여 1~2개의 놀이를 적으면 한 달이면 50개 정도가 된다.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포스터로 다가가서 원하는 놀이를 묻고, 그 놀이를 하면 아이가 만족한다.
- 2 사다리 타기:** 아빠들이 잘하는 놀이다. 종이에 10칸 정도를 세로로 그린 다음, 맨 밑에 아이가 놀고 싶어하는 놀이를 적는다. 그리고 사다리 타기를 통하여 놀이가 정해지면 그 놀이를 하면 된다.

“상황별 놀이법”

퇴근 놀이

행복 에너지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생성시키는 1분 놀이

- 1 점프놀이:** 아빠가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서 ‘출발’을 외치면 아이가 달려온다. 그러면 아이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은 후에 들어서 3바퀴를 돈 후에 소파에 부드럽게 던진다. 2~3회 한다.
- 2 씨름하기:** 퇴근 후 즉시 실시한다. 아빠가 2판을 져주고 마지막 한 판을 이기면 아이가 좋아한다.
- 3 손바닥 씨름:** 서로 마주보고 손바닥을 마주대며 자세를 낮춘다. 그리고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영차영차’나 혹은 용을 쓰며 강약과 완급을 조절한다. 그리고 쓰러지면서 ‘아이쿠, 아빠 죽겠네’라고 하면 아이는 빵 터진다. 2번 져주고 한 번 이긴다.

매일 놀이

설레임이 생성되어 매일 놀아도 즐거운 놀이

- 1 숨바꼭질:** 가위바위보를 한 후에 아빠는 술래가 되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를 5번 외친 후에 찾는다. 이때, 바로 찾으면 재미없다.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지 못하는 척을 5분 정도 하면 아이의 애간장이 녹아버린다.
- 2 나 잡아봐라:** 거실에 지름 2미터 원을 그린다. 술래는 스카프로 눈을 가린 후 양손을 움직여서 감각으로 찾는다. 아빠가 술래가 되면 잡을 듯, 말 듯한 행동을 반복하면 웃음이 뱅뱅 터진다.

셀프 놀이

아이는 왕창 힘이 들지만 아빠는 거의 힘들지 않다!

- 1 종이컵 쌓기:** 종이컵 500~1000개를 준비한다. 아빠가 10개로 피리미드 쌓는 시범을 보인다. 그러면 아이는 자동으로 도전한다. 그러면 곁에서 응원을 해준다. 아빠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한다.
- 2 베개 싸움:** 유아 및 초등학생도 가능하며 2~3명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 서로 대형 쿠션 베개를 갖고 서서 시작한다. 1분 정도만 ‘압압’하며 공격을 하다가 이후에는 아빠가 일방적인 수비를 하면서 ‘아이고 아파라’ ‘아빠 죽겠다’를 큰 소리로 외친다. 3분이 넘으면 아이들은 에너지가 방전되어 쓰러진다.

가족 쌓기 놀이

가족이 원형으로 앉아 수직으로 쌓는 놀이

- 1 두루마리 화장지 쌓기:** 각각 5개의 화장지를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쌓는다. 아이가 60% 이상 이겨야 놀이가 더욱 재미있다. 쓰러질 때, ‘아이쿠’라며 큰 소리로 감정을 표현한다.
- 2 베개 쌓기:** 집 안에 있는 베개와 쿠션을 모두 이용하여 한 명당 5개의 베개를 로테이션으로 쌓는다.

영아 놀이

어린 영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 1 수건 줄다리기:** 아이에게 수건을 잡게 한 후, 시작과 함께 ‘영차영차’를 외치며 동시에 밀고 당기기를 하며 줄다리기를 한다. 아이가 이기면 ‘성공’ ‘잘했어’ ‘멋진데’라고 크게 외쳐준다. 아이가 계속 이겨도 좋아한다.
- 2 신문지 찢기:** 신문지 상단에 V자 홈을 5센치 정도 낸 다음, 한 쪽은 아빠가 잡고 한 쪽은 아이가 잡는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빠가 뒤로 물러나면 저절로 신문지가 찢어진다. 그 때, “슈~~웅” 소리를 내고 완전히 찢어지면 ‘성공’을 외친다. 이 놀이가 끝나면 조각을 아이 머리 위로 눈 날리기를 한다.



어린이집 살펴보기

아이야. 같이 놀자!

글 · 김지해 (서울 이마트어린이집 만1세반 담임교사)

하나의 놀이감에서 다양한 놀이방법을 찾아 그 속에서 즐거움과 배움을 경험하는 아이들을 보며 ‘잘 노는 아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잘 노는 교사’가 되기 위해 아이들의 놀이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나는 아이들이 놀이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시간, 공간, 활용 등 모든 면에서 좀 더 흥미로운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였다.

▶ 하나가 ‘무한’이 되다.

아이들은 준비한 쌀 튀밥을 양 볼 가득 입에 넣고 배가 뽕뽕해지자 본격적인 놀이를 시작했다. 쌀 튀밥이 들어있는 바구니 안에 놀이감을 넣고 꺼내며 까꿍 놀이하기, 덤프트럭에 쌀 튀밥을 넣고 옮기기, 선생님 사진 위에 튀밥을 올리고 “먹어” 말하며 마음 표현해보기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튀밥을 빗자루로 쓸어보기도 하며 재미난 놀이를 맘껏 펼쳤다. 무한한 놀이방법을 발견해나가는 놀 줄 아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색을 입힌 튀밥과 튀밥 촉감 길을 제공하였고, 어느새 여긴 즐거움이 가득한 ‘놀이 세상’이 되어있었다.



▶ 모든 곳은 아이들의 놀이터

아이들은 형님 반에서 찾은 바다생물 백과사전을 보고 이름을 외울 정도로 바다생물에 흥미를 보였다. 흥미에 따라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움직이는 물고기를 탐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영상을 보며 물고기를 잡는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바닥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다. 헤엄치는 아이들 모습에 파란색 비닐을 바닥과 교구장에 올려 바닷속 공간을 만들어주었으며 아이들은 물고기가 되어 놀이할 곳곳을 돌아다니며 헤엄쳤다. 놀이 중 한 아이는 복도에 수족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문밖을 가리켰고 아이들 모두 복도에 서서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수족관에 대한 흥미는 지속되어 복도에 폭신한 매트를 깔아주었고 아이들은 일과 중 언제든지 나가 물고기를 탐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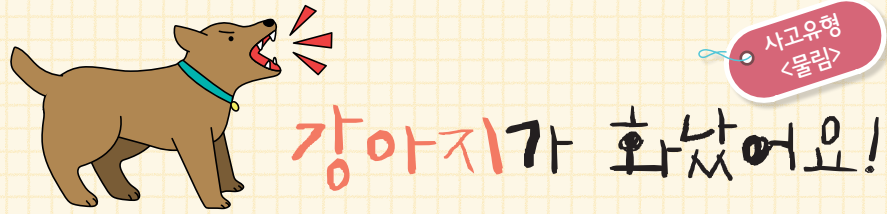
좋아하는 놀이를 하며 자유롭게 놀이 공간을 확장하고 변형해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들이 ‘아이들의 놀이터’로 보였다.



한 번쯤 교사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놀이에 참여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놀이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놀이를 이해하게 되고, 경험을 행동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며 함께 웃고 놀이하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재난 호 보기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들의 현장학습, 실외활동 등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금요일 오전 영어반 아이들과 담임선생님은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산책로로 실외활동을 나왔습니다. 마침 맑은편에 한 아주머니가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걸어오고 있었고 아이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강아지를 무서워하자 아주머니는 “괜찮아, 만져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은이가 강아지를 만져보려고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다가가는 예은이를 보자마자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순식간에 강아지가 예은이의 손등을 물고 할퀴 두었습니다.



산책하다가 주변의 비둘기, 개미, 강아지, 길고양이 등을 만나면 영유아들은 매우 반가워합니다. 반면 동물들은 낯선 사람을 대할 때 경계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본능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눈으로 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응급처치 방법

- 동물에게 물린 경우, 상처가 크거나 출혈이 심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고 상처가 심하지 않더라도 찢긴 피부로 동물의 병균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처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합니다.

보육환경 관리법

- 견학이나 소풍 등의 활동 시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동 시 영유아가 전체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야외활동을 처음 접하는 (신입)영유아, 이탈행동이 빈번한 영유아 등은 교사가 가까이 자리를 배치하고 더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 곤충 물림사고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 곤충에게 물린 경우 대부분 물린 부분의 염증반응만 몇 시간 정도 진행된 후 호전되나, 간혹 전신 두드러기, 감염,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에피네프린 주사의 투여가 늦어지면 사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곤충에 물린 아이가 입술, 얼굴, 팔 등이 심하게 붓거나, 호흡곤란, 심한 기침,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면 빠른 응급실 방문이 필요합니다.

/ 출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www.csa.or.kr) 자료실의 e-book 게시판에「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집 Vol.3」참고 /



식품알레르기 A toZ

글 · 전 윤 숙 영양기획 팀장 (의왕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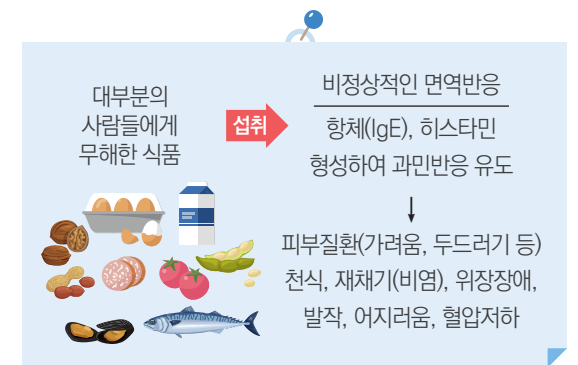
🍷 식품알레르기란 무엇인가요?

알레르기는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이 식품인 경우를 식품알레르기 라고 합니다.

🍷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까요?

구토, 설사, 호흡곤란, 피부발진, 두드러기 등 모든 기관에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며 가벼운 반응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xis shock)* 와 같은 심각한 반응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짧은 시간동안 여러기관에서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 어떤 음식을 주의해야 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난류 ② 우유 ③ 메밀 ④ 땅콩 ⑤ 대두 ⑥ 밀 ⑦ 고등어 ⑧ 게 ⑨ 새우 ⑩ 돼지고기 ⑪ 복숭아 ⑫ 토마토 ⑬ 아황산류 ⑭ 호두 ⑮ 닭고기 ⑯ 쇠고기 ⑰ 오징어 ⑱ 조개류(홍합, 전복, 굴) ⑲ 잣

*어린이집 식단의 메뉴표에 작은 번호들은 바로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입니다.

*우리나라 2~12세 아동들에게 식품알레르기 주요 원인 식품군은 우유, 달걀, 땅콩 및 견과류, 갑각류, 깨, 쌀, 메밀, 생선, 과일입니다.

저녁 DAY 21	
오전 간식	V 신선과일(배) 호상요구르트 ②
점심	게살우영볶음밥 ①⑤⑥⑧ (미소장국 ⑤⑥) 동그랑땡 ①⑤⑥⑩ 깻잎무침 ⑤⑥ 배추김치 ⑨
오후 간식	칼국수 ⑥⑩

〈어린이집 식단〉

🍷 가정에서 관리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식품을 제한 해 주세요.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는 가공식품의 식품알레르기 표시를 확인 해 주세요. 새로운 식품을 접할 때는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인 식품 제한으로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대체 식품을 섭취 해 주세요. (예: 달걀에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두부 혹은 고기, 생선, 해산물로 대체 우유에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두유 섭취 등)

/ 출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식품알레르기 교육 참고 자료〉
서울시아토피션센터(식품알레르기 알고잡시다_카드뉴스) /



재난 호 보기



글 · 배 승 민 인천스마일센터장 (가천의대 정신과학 교수)

진료 중 아이 어머니의 육아 스트레스 측정치가 높게 나왔고, 산후 우울증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아이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산후 우울증이라뇨? 아니 애 하나 키우면서, 벌어오는 족족 집안 살림과 애 물건 사는데 죄다 쓰는데다가 저도 얼마나 열심히 돕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도움 하나 없이 일곱 남매를 키우셨건만, 이렇게 편히 사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라니 말이 되나요?” 아이 어머니도 어느새 눈가가 붉어져 하소연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육아가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친정 엄마도 젊을 때는 애들 크는 맛에 피곤한 줄 몰랐던데.. 아이가 물론 예쁘긴 하지만, 요즘엔 이러다 정말 제가 미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친구들 SNS만 봐도 다들 똑소리나게 아이를 키우고 살림도 척척이던데.. 대체 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이제 일반인에게도 낯설지 않을 만큼, 보호자의 스트레스 관리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팔자가 편해서 걸린’ 병처럼 보는 시선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울증’으로 진단할 정도의 중증은 아닐지라도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가정의 안녕에 빨간 불이 켜진다는 사실이 아직 그리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생명체의 기본 욕구라는 자손을 낳아 키우는 일에 ‘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붙이게 된 것일까요? 어른들의 말씀처럼, 요즘 세대가 어려움 없이 자라서 마땅히 해야 할 양육마저 엄살을 부리는 걸까요? 현 세대에는 출산율이 급감할 만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뿐 아니라 경력 단절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늘었습니다. 더불어 가뜰이나 불안한 부모에게 미디어의 과장된 광고들은 다른 집에 비해 유독 우리 아이만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불안을 자극하지요. 또 동네 육아가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육아는 부모, 특히 어머니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양육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걸까요?

1 완벽함과 계획은 다소 내려놓자.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는 말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부모가 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배워나갈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부모들의 한탄을 듣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나마 계획대로 살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던가요? 공부만 잘하면, 좋은 직장만 잡으면 인생이 피는 것처럼 배웠던 과거의 가치에는 많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이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고, 사람도 직장도 어느 하나 계획대로만 굴러가지는 않지요.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때론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

해야 합니다. 애착이론에서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으로 딱 3가지만 말합니다. 아이에게 ‘민감하게’ ‘행동으로 반응해 주되’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마저도 100% 완벽하게는 못 지켜도 됩니다. 어른들의 상황에 맞추되, 되도록 60% 이상 이 규칙에 맞춰 대해주면 아이들은 충분히 안정을 찾습니다.

2 아이의 때는 대다수 ‘몰라서’ 일어난다. 우리도 배우고 가르쳐주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시야 안에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배가 부르면 남들도 배가 부를 것이고, 내가 아프면 남들도 다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른에게도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쉽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아이라도, 어른만큼 소리 있게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 상태를 파악해 논리적으로 표현할 줄은 모릅니다. 아이로 인해 부모가 당황하게 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아이가 낯선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한 표현의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아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잘 관찰해서 파악한 다음에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정답도 없고, 한번 찾아낸 답조차 어느새 정답에서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아이가 모르는 것은, ‘아이마다’ 다르고, 같은 아이여도 ‘그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멋진 육아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나의 아이에게는 그 해결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 매일매일 달라지며 성장하고 있는 아이를 끈기 있게 관찰하고 배워서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3 아이의 불안을 다루는 것 못지않게 나의 불안도 잘 다루자.

우리도 어린 시절, 주변의 어른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어도 만사에 전전긍긍이고 예민한 성품이라면, 허허실실하다 실수가 있을지언정 여유로운 어른과 있는 게 더 편안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봐도 나나 아이의 문제가 아닌데 상황이 계속 어렵게 꼬여갔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이보다 어른인 우리의 불안과 불편한 감정이 더 클 때이죠. 어른인 우리는 아이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길 줄 알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모를 만큼 감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덮어두기만 한 감정은 언젠고 흘러나와서, 아직은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어린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라도 감정을 숨기는 것은 그다지 잘 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필요한 도움은 요청하자.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한계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맞춰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도움을 청해 보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계에 맞춰서 규모나 목표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와 배우자의 한계 또한 나이와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왕년의 자신만을 기억하고 변화하는 본인과 아이, 주변에 눈을 감는다면 우리는 고인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퇴화되어갈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생명으로서의 ‘나’라는 존재를 좀 더 잘 알고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아이를 비롯한 다른 사람과의 이해를 넓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림 찾기

무엇~이 무엇~이 달라졌나?

그림 · 천보현 (그래픽 디자이너)




봄의 해를 맞아 소풍을 떠난

호랑이 가족!

봄을 맞아 벚꽃이 활짝 핀 동산으로
놀러갔네요. 우리도 소풍을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서로 다른 9곳을

찾아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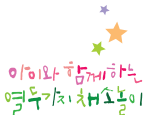
정답





2022
Vol.50

아니-
지갑이다.



시금치
놀이



버섯 놀이

오이
냉이

2022년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사업계획

센터 운영지원 및 직원 역량강화

1.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홈페이지 관리 (2022년 리뉴얼 예정)
2.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2022년 (온:ON)택트 사업보고대회
- 일시 : 2022년 11월 4일(금) 예정
3. 센터장 연수
4. 직원역량강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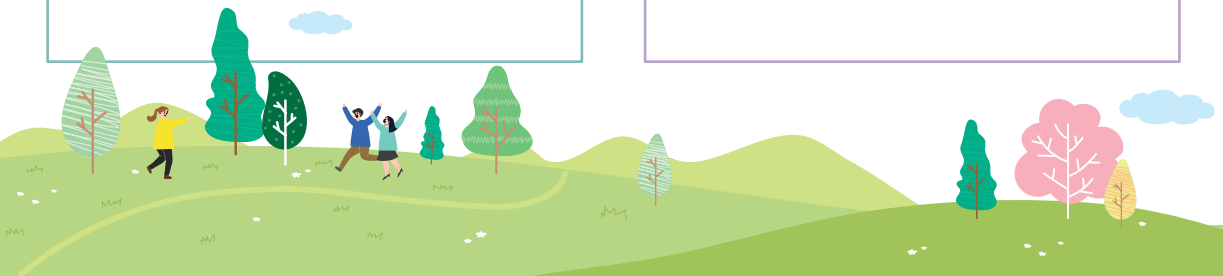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지원

1. 스마트한 어린이집 생활 자료제작
2. 푸드머스 및 CJ 프레시웨이 협력교육
3. 언론중재위원회 협력교육

행사 및 홍보

1. 제14회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 콘테스트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9월
- 시상식 : 2022년 9월 중 예정
2. 육아정보소식시 「아자」 발간
3. 공통 슬로건 캠페인
- 2022년 주제 : 아동학대 예방
4. 기타 : 달력 및 연하장 공동제작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1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2길 7 ☎ 06186	02)546-1736-7	www.gncare.go.kr
	2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6길 16 ☎ 05398	02)486-3556	www.gdkids.or.kr
	3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 ☎ 01036	02)994-7480	childcare.gangbuk.go.kr
	4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2길 50 ☎ 07641	02)2064-2732	www.gskids.or.kr
	5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91 관악가족행복센터 (4층) ☎ 08761	02)851-2834-5	www.educare.gwanak.go.kr
	6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4층) ☎ 04933	02)467-1827	www.gicare.go.kr
	7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3층) ☎ 08285	02)859-5678	www.guroccic.or.kr
	8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 08611	02)894-2264-5	www.happycare.or.kr
	9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 4동 공공복합청사 (4층) ☎ 01633	02)930-1944	www.nwscc.or.kr
	10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율로 62 ☎ 02597	02)2237-5800 02)2247-5843-5	www.ddmccic.or.kr
	11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3층) ☎ 06945	02)823-4567	www.dccic.go.kr
	12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 ☎ 03905	02)308-0202	www.mcic.or.kr
	13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15길 31 ☎ 03711	02)3217-9550	www.sdmccic.or.kr
	14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 ☎ 06730	02)598-9340	www.youngua.seocho.go.kr
	15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6길 10-53 ☎ 04750	02)499-5675-6	ccic.sd.go.kr
	16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 ☎ 02750	02)918-8080	ijoa.gongdan.go.kr
	17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종대로 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 ☎ 05661	02)449-0505	www.spscc.or.kr
	18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81 해누리타운 (8층) ☎ 08094	02)2646-7790-1	www.ychccic.or.kr
	19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 ☎ 07362	02)833-6022	www.ydpcic.or.kr
	20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본관 (2층) ☎ 04316	02)749-9673	www.ysccic.or.kr
	21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1길 6-3 ☎ 03073	02)737-0890 02)735-0890	www.jnccic.or.kr
	22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1층) ☎ 04558	02)2263-2626	www.jgkids.or.kr
	23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67길 10 망우본동복합청사 (5, 6층) ☎ 02059	02)495-0030-1 02)495-2530	www.jccic.or.kr
부산광역시	24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6로 318번길 58 ☎ 46773	051)201-5202	bgscc.or.kr
	25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110 ☎ 46019	051)991-0777	www.gijangchild.or.kr
	26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29 ☎ 47758	051)526-0756	www.bdscc.or.kr
	27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 ☎ 47271	051)936-7011	bjscc.or.kr
	28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 104번가길 37 ☎ 46556	051)342-6161	bbgscc.or.kr
	29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210번길 17 ☎ 46961	051)321-3389	sasangicare.kr
	30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14 ☎ 48254	051)756-3700	www.bsyscc.or.kr
	31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24번길 22 ☎ 47547	051)866-7191	www.yjscc.or.kr
	32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513번길 66-11 ☎ 48002	051)527-2446	www.ecohud.or.kr
대구	33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53길 36 ☎ 41023	053)662-3521	www.dgicare.kr
	34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1층) ☎ 21040	032)556-5712-4	www.gyboyuk.go.kr
	35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45 ☎ 21589	032)719-1601-4	www.ndscc.or.kr
	36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112번길 22 (2~4층) ☎ 22114	032)884-0756 032)885-0756	www.nccic.or.kr
	37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18번길 51 (2층) ☎ 21320	032)361-8653-4	www.bpscc.or.kr
	38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 264 ☎ 22725	032)568-7234	www.isscc.or.kr
	39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내 604호 ☎ 21967	032)715-8262	www.ys-scc.com
광주	40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31-9 (3층) ☎ 61501	062)608-8822	www.donggu.kr/scc
	41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 61953	062)375-0756	gjscc.or.kr
	42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 251 ☎ 44701	052)256-9508	www.namgui.or.kr
울산광역시	43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 (2층) ☎ 44035	052)201-0961	www.udsc.or.kr
	44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2 ☎ 44248	052)285-0756	www.bukguscc.or.kr
	45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 ☎ 44971	052)246-0600	www.uljukids.or.kr
	46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8길 66 ☎ 44544	052)275-1233	www.jgicare.or.kr
경기도	47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9 (3층) ☎ 12417	031)8078-8100	www.gpicare.or.kr
	48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 ☎ 10501	031)975-3314	www.echild.or.kr
	49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2 가족여성플라자 (4층) ☎ 13831	02)6925-2526	www.educaregc.or.kr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기도	50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 78번길 7 ☎ 14245	02)899-0163-4	www.gmscc.or.kr
	51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1404-1 ☎ 12704	031)765-6010	www.gjchildcare.or.kr
	52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 (4층) ☎ 11919	031)566-2323	www.guricenter.go.kr
	53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 ☎ 15823	031)393-0236	www.gpscc.or.kr
	54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 ☎ 10080	031)985-1901	www.gpchildcare.or.kr
	55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 1로 96 ☎ 12057	031)528-4463	www.nyjscs.kr
	56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0 ☎ 14551	032)322-8686	www.bucheoni.or.kr
	57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379 ☎ 13437	031)721-1640	sneudcare.or.kr
	58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47 ☎ 16312	031)255-5682~4	www.swchildcare.or.kr
	59 수원시 동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29 ☎ 16712	031)273-6690~2	ytchildcare.or.kr
	60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7 ☎ 15055	031)431-5682	www.shccic.net
	61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 15385	031)415-2271~3	www.ansanbo6.or.kr
	62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72 상가동 (2층) ☎ 17577	031)676-2991	www.ans.or.kr
	63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천로 39 만안평생교육센터 (2층) ☎ 14091	031)383-5170~1	www.aycteducare.go.kr
	64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426번길 90 양주체육복지센터 (3층) ☎ 11451	031)868-0200	www.yjscc.or.kr
	65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8번길 7 ☎ 12585	031)773-2331	www.ypscc.or.kr
	66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2 ☎ 12628	031)883-2019	www.yeojucare.or.kr
	67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10번길 30 ☎ 18105	031)374-5563	www.osanchild.or.kr
	68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90 ☎ 17019	031)335-8690	www.yicare.or.kr
	69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82 포일어울림센터 (1층) ☎ 16014	031)455-1853~4	www.uweducare.or.kr
	70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덕암빌딩 (4층) ☎ 11652	031)853-5006~8	www.icare.or.kr
	71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34번길 38 ☎ 17375	031)634-9842~4	www.goodcare.or.kr
	72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3층) ☎ 10813	031)954-4800	www.pajuscc.or.kr
	73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번길 2 ☎ 17896	031)692-7705	www.ptct.or.kr
	74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포천시립중앙도서관 내 (1층) ☎ 11140	031)536-9632	www.pocheonscc.or.kr
	75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4번길 125 (6층) ☎ 12919	031)796-6579	www.hnchildcare.or.kr
	76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165 (3층) ☎ 18329	031)8059-1640~2	www.hsicare.or.kr
강원도	77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용지각길 20번 안길 3 ☎ 25548	033)641-1382 033)642-1383	www.kneducare.or.kr
	78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31 ☎ 26464	033)745-0756	www.wjeducare.or.kr
	79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77 ☎ 24243	033)241~3-0756	www.cchildcare.or.kr
충청도	80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풍양로 108, 중앙시장 나동 (2층) ☎ 27173	043)756-7580	www.jcicare.com
	81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60 ☎ 27876	043)533-0202	www.jcicare.or.kr
	82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13-2 ☎ 28481	043)222-6660	www.cjkids.or.kr
	83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남한강로 40 ☎ 27438	043)845-7505	cjicare.or.kr
	84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 6로 127-1 ☎ 31085	041)561-2821~2	www.ceic.or.kr
전라도	85 고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 2길 20 ☎ 56431	063)564-0862	www.gochang.go.kr/childcare
	86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30 ☎ 54129	063)911-0756	www.hwgunsan.or.kr
	87 여주시	전라남도 여주시 웅천 6길 47 ☎ 59693	061)692-0756	www.yeosuchildcare.or.kr
	88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공동로 43 ☎ 54541	063)859-7410	childcare.iksan.go.kr
	89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3길 61 2동 (3층) ☎ 54986	063)905-6509	www.jeonjusc.or.kr
경상도	90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1로 1길 25 ☎ 39660	054)421-2470	gc.go.kr/childcare
	91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역옆길 25 ☎ 36967	054)701-2337	www.mgcare.or.kr
	92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2길 49 ☎ 37181	054)536-2021	www.sjchildcare.or.kr
	93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440 ☎ 36658	054)852-6060	www.adeducare.or.kr
	94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20번길 11 여성화관 창원관 (4층) ☎ 51491	055)287-1216	ec.changwon.go.kr
	95 포함시	경상북도 포함시 남구 뱃머리길 39 포함시평생학습원 (407호) ☎ 37833	054)256-2580	www.phcare.or.kr
제주도	96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9 ☎ 50231	055)934-0884	hc4children.or.kr
	97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 22 ☎ 63568	064)739-6275	www.sgpchildcare.or.kr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아자 불호 | 통권 제50호 계간 | 발행일 2022년 3월 10일 | 발행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덕암빌딩(3~5층)

T.(031)853-5006~8 F.(031)853-5009 <http://www.eaja.or.kr> | 기획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분과 | 편집 하늘디자인 T.(031)595-9597